

‘광주 정신’을 아시아로...제1호 ‘광주 진료소’ 준공

캄퐁스푸=최권일기자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광주진료소 (Gwangju Clinic) 건립’ 캠페인의 첫 결실이 맺어졌다. 동남아시아에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 정신’과 ‘광주 인술’을 실천할 제1호 ‘광주 진료소’ 준공식이 지난 20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2면)

준공식에는 ‘광주진료소’ 설립 주관단체인 (사)희망나무 의료 봉사단과 광주시의원, 캄보디아 캄퐁스푸 주(州) 정부 관계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 진료소’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부터 60km 떨어진 캄퐁스푸 주

캄보디아 캄퐁스푸 준공식

내과·치과·안과 등 진료

의료장비·약품 잇단 기부

(州)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300평에 연 면적 80평 규모의 1층 골조 건물로 지어졌다.

‘광주진료소’ 부지는 캄퐁스푸 주에서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총 공사비 1억 1000만원이 소요됐다.

진료소에는 내과, 치과, 안과 등 진료소 4개 사무실과 수술실 1곳, 회복실 1곳이 들어선다. 광주진료소 운영위원회는

진료소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각 진료실과 수술실 등에 의료장비를 세팅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다.

진료소에 들어갈 의료장비 기부도 잇따라 내년 1월 중순이면 의료장비 세팅도 끝날 예정이다. 광주진료소 공동운영위원장인 최동석 미즈피아 산부인과 원장과 류해경 서광병원 원장이 각각 초음파 장비 1대를 기부했다.

또한, 치과 기증자는 미르치과병원이, 아이퍼스트 아동병원은 소아과 진료장비를, 보라과병원엔 세극등 현미경 등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밖에 김대의 프라임제약 대표가 약

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 이어 (사)희망나무 의료봉사단과 광주시의원들은 21일 까지 이틀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료와 미용, 영화상영, 방역,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등의 봉사활동도 펼쳤다. 의료봉사에는 첨단 미르치과병원 박석인 원장팀과 아이퍼스트 아동병원 전성현 원장, 광주병원 강유호 원장, 조대병원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 우리아동소아과 한승표 원장,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 등이 참여했다. 박인화, 김선호, 정희근, 손재홍, 김보현, 흥인화 광주시의원 등은 어린이 교육과 방역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김대의 프라임제약 대표가 약 /cki@kwangju.co.kr



지난 20일 캄보디아 캄퐁스푸 주(州)에 건립된 ‘광주 진료소’ 건물 앞에서 (사)희망나무 의료봉사단과 광주시의원 의원, 캄퐁스푸 주정부 관계자, 주민들이 준공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캄퐁스푸=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멈춰선 화물열차... 하루 운송량 86% 줄어

르포/철도파업 장기화...광양항 가보니

철도노조 파업 13일째인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광양시 황길동 서쪽 컨테이너부두터미널인 신광양항역은 영하권의 추운 날씨만큼이나 공랭 얼어붙어 있었다. 주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신광양항역엔 화물열차 두 대가 나란히 멈춰서 있었다.

서울·인천지역에서 신고 온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열차에선 하역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500t급 트랜스퍼 크레인(T/C)이 정차된 화물열차 사이를 오가며 25t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옮겨 실었다. 옆에 정차된 수입 컨테이너 화물 열차에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코레일은 화물열차를 이용, 전자부품·제지·건축 등을 실은 수출·입 컨테이너를 신광양항역으로 반출입하고 있다. 파업 전 신광양항역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모두 11회, 운송량은 2690t이지만, 파업 후엔 하루 운송횟수 4회(36.4%)·운송량 384t(14.3%)으로 줄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다면서도 철도노조 파업 장

기화에 따른 화물연대와 연대 파업을 걱정하고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장치울(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 화물이 쌓여 있는 정도)은 40% 수준이다. 급한 화물운송은 화물차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차가 멈춰선 경우 피해는 심각해진다. 여수·광양항만공

경찰, 조합원 등 119명 연행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선언

화물연대 동조엔 물류대란

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출·입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164.3TEU로 이중 화물차 운송률은 전체의 91%인 5609.5TEU이다. 나머지 9%인 554.8TEU는 화물열차를 이용해 운송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철도파업으로 인한 차량 대체수송 역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실화될 경우 물류 수송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철도노조 지도부가 은신 중인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영장집행을 막아선 민주노총 조합원 등 119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 경찰서 9곳에서 분산 조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반발, 23일부터 확대 간부파업에 돌입한 뒤 28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 탄압은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하면서 철도노조 파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광양=이종행·박영진 기자 golee@



철도노조 파업이 계속된 지난 21일 광양시 신광양항역에 화물차가 멈춰서 있다. 서울 오봉역에서 수출용 컨테이너를 신고 출발한 화물열차(사진 왼쪽)가 화물을 하역하고 있는 반면, 수입용 컨테이너를 신고 서울 오봉역과 전주 동산역으로 향할 화물열차 적재함은 텅 비어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경전철 최종 확정

국토부 심의 승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 저심도 경전철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이 국토부 주관 국가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상고가 방식에서 지하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상 고가방식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음공해 등을 유발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지난 해 7월 저심도 건설방식으로 변경·확정하고, 17개월을 기다린 끝에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저심도 방식 변경으로 총 사업비도 1조9286억원에서 1조9053억원(국비 60%, 시비30%, 지방채10%)으로 233억원이나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됐다. 2호선 평균속도는 시속 38.8km로 57분내에 순환할 수 있으며, 1호선과의 환승역은 상무역과 남광주역이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전남대~오치~일곡~첨단지구~수완지구~시청을 연결하는 2호선 41.9km 구간을 3단계로 나눠 건설하게 된다.

1단계(2016~2019년)는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 구간이며, 2단계(2019~2022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공단~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 3단계(2022~2024년)는 백운광장~대광역~진월초교~광주대~송암광산~효천역 구간이다.

시는 2014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2015년 실시계획을 할 예정이다. 고연식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계획 과장은 “2호선이 완공되면 1호선과의 환승에 따른 지하철 이용률 증가와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로 교통난 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The New S-Class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New S-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5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350 BlueTEC 2,987cc, 2,09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9km/ℓ(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6.9km/ℓ),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55g/km * S 350 BlueTEC 4, 2,987cc, 2,180kg, 자동7단, 복합연비 13.0km/ℓ(도시연비 10.9km/ℓ, 고속도로연비 16.8km/ℓ),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54g/km * S 500 L 4,663cc, 2,170kg, 자동7단, 복합연비 8.0km/ℓ(도시연비 7.2km/ℓ, 고속도로연비 10.9km/ℓ), 5등급, 복합CO₂배출량 212g/km * S 500 4MATIC 4,663cc, 2,255kg, 자동7단, 복합연비 8.0km/ℓ(도시연비 6.6km/ℓ, 고속도로연비 10.5km/ℓ), 5등급, 복합CO₂배출량 226g/km * S 63AMG 4MATIC 5,461cc, 2,215kg, AMG SPEEDSHIFT 7단 멀티클러치, 복합연비 7.3km/ℓ(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9.4km/ℓ), 5등급, 복합CO₂배출량 246g/km ※ 빈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